

허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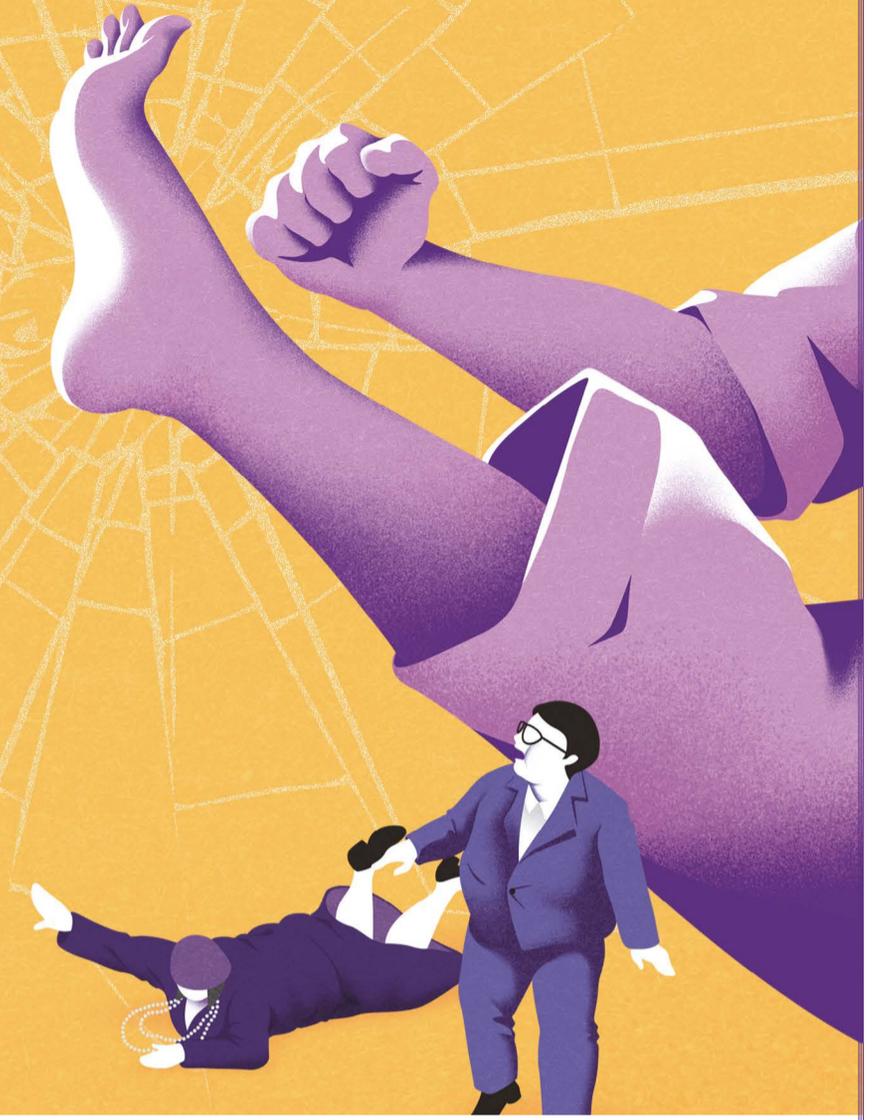
근현대 회곡의 재발견 10

2018.
12.05 - 24

백성희장민호극장

송영 작

연출 윤한솔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 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북에 포함된 모든 원고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는 어떠한 형태의
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10

2018.
12.05-24

백성희장민호극장

송영 작

연출 윤한솔

작가소개

송영

1903~1979 추정

자료 | 문화문제연구소



1903년 서울에서 태어나, 1925년 소설 『늘어가는 무리』를 통해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했다. 노동자의 계급을 대변하는 ‘카프’* 계열의 대표 작가로, 1920년대 일본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을 직접 경험한 뒤 그들의 삶과 노동의 가치를 증명하는 작품들을 발표했다. 근대화에 따라 계급으로 양분되는 사회현실을 특유의 풍자와 해학을 담은 독특한 문학적 스타일로 선보이며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아 왔다.

카프(KAPF)란?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의 에스페란토식 표기 ‘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의 머리 글자를 딴 약칭. 러시아혁명 이후 세계적으로 고취된 프로레타리아 운동의 영향에 힘입어, 조선에서도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의 ‘문화정치’ 하에서 공산주의운동이 문학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수상내역

- 1959 제1회 북한 인민상
- 1943 제2회 국민연극경연대회 각본상 <역사>

작가연보

- 1903년 서울 서대문 오공골 출생 - 본명 무현, 필명 송영
- 1917년 배재중학 입학, 소년문예구락부 조직, 윤독잡지 『새누리』 발간
- 1919년 3·1운동에 가담, 학교 중퇴 후 운송국에서 약 3년간 노동
- 1922년 일본으로 건너가 사회주의 사상을 굳힘
- 1925년 7월 『개벽』 현상공모에 소설 『늘어가는 무리』가 당선되어 등단

- 1925년 8월 조선프로레타리아 문학예술동맹(카프) 결성에 참여
- 1929년 카프 준기관지 『조선문예』 인쇄 책임자로 활동
- 1931년 카프 제1차 검거 사건으로 피검
- 1934년 카프 제2차 검거 사건으로 피검
- 1935년 집행유예로 풀려나 카프 해산을 적극 반대 인생극장 창단
- 1941년 조선무대 창단
- 1943년 제2회 국민연극경연대회 출품작 <역사>로 각본상 수상
- 1945년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산하 조선연극건설본부 위원장 역임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의 창립에 가담

- 1946년 김영팔과 함께 월북.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상무위원으로 활동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등 고위직원 맡으며 문학활동과 정치활동 병행
- 1959년 제1회 북한 인민상 수상
- 1961년 당중앙 검사위원회 위원장 역임
- 1979년 정신질환으로 사망

웃음으로 마음을 움직여 행동을 이끌 수 있을까

계곡 | 두산아트센터



윤한슬

극단 그린피그 상임연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주요작품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 공옥진의 병신춤 편>
<할미꽃단란주점 할머니가 멜론씨를 준다고 했어요>
<인터넷 이즈 씨리어스 비즈니스> <174517> <치정>
<젊은 후시딘> <1984> <두뇌수술> 외

수상내역

2016 제18회 김상열연극상
2013 제34회 서울연극제 올해의 젊은 연극인상 <아름다운 동행>
2012 제5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 <두뇌수술>
2011 제2회 두산 연극예술상 공연부문

국립극단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시리즈를 통해 시대상을 반영하면서도 의외의 면을 보여주는 다양한 작품을 접하게 됩니다. 이번 작품 <호신술>은 상징적인 풍자로 이루어진 짧은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고르신 이유, 즉 어떤 점에 끌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윤한슬 연출가(이하 윤) 처음 작품을 읽었을 때 일차적으로는 당시의 시대, 그리고 자본에 대한 풍자를 읽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작품에 대한 해설을 읽고 명확해진 것이 있는데, 요즘 많이들 쓰는 말로 셀프 디스(Self-dis)라고 하는 자기풍자의 방식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의 언어 자체에 집중해서 들여다 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행동양식이 달라지기도 해요. 당시의 언어를 쓰면서 현대의 일상적 제스처를 함께 하기에 낯설고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언어적 측면에 주목했고, 작품에 드러나는 노동 문제를 통해서 동시대성을 드러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선택했어요. 작가 송영이 자신의 희곡의 목적이 선동이라고 쓴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선동이 될 수 있을 지점이 작품 어디에 있겠는지, 등등의 고민들을 갖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시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언어적 측면에 주목한다고 하셨는데, 희곡을 읽어봤을 때 이 작품의 언어가 다른 작품과 비교해서 당시의 시대를 더 잘 드러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언어의 어떤 측면에 주목하셨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윤 보는 언어와 말하는 언어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의 말하는 언어는 어떻게 들으면 38선 인접한 강원도 사투리들, 우리가 영화 등에서 들어온 북한 사투리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대어에서 사라진 모음조화들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익숙하게 연습하고 있지만 표기법에서 그렇지 않은 것들, 말을 분절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대본 상에 표기되어 있기로는 현대어 같지만 실제로 말할 때는 다른 거죠.

이를 연습하기 위한 참고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주로 남아있는 영상들, 즉 영화나 유성기에 녹음되어 있는 만담들을 배우들과 들으며 호흡과 말투들, 발음들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사한 속성들을 찾아내고 그에 따라 대사들을 해보는 거죠. 옛날 영화를 보면 그때는 두성을 많이 썼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 비음을 많이 섞어 쓰고, 당시에는 비음이 여성성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더빙하는 말투를 보면 콧소리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화도 무뚝뚝하게 내고 심지어 웃는 것도 무뚝뚝하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 당시의 사회가 갖고 있는 통념들을 엿볼 수 있는 거죠.

<호신술>은 웃음의 코드를 다양하게 심어놓은 희곡입니다. 양반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희화화하여 풍자와 해학을 제공하던 우리나라 전통유희극의 연장에 이 작품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희극적 특성들이 어떻게 구현될 지도 궁금합니다.

윤 세태를 풍자하는 당대의 웃긴 이야기들을 찾아 자료를 쫓다 보니 1930년대 이후의 만담에서 장소팔, 구봉서까지 오게 되더군요. 그러다 1960, 70년대의 <웃으면 복이 와요>류의 코미디 프로그램 영상들을 들여다 보게 되었는데, 조악하면서도 아날로그적인 장치들이 쓰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작품에 빌어오는 생각을 한 거죠. 무대 장치라는 것이 관객들에게 적절한 환상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지금보다 한참 과거의 어설픈 장치를 빌어왔을 때 관객에게 환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즉 관객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구현해내는 어설픈 소동으로 작품을 풀어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 어설픈 장치를 작동시키는 형식을 통해 공연에 필요한 노동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장치를 통해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설픈 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노동이 더 부각되는데, 작품이 구현되기 위해서 어떤 노동이 투입되고 있는지를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눈앞에 펼쳐지는 공연을 위한 노동이 작품 속 직조 공장의 노동자 노동과 등가가 될 수는 없지만 관객들로서는 노동 자체를 현시하게 됩니다. 보는 이들에게 조금은 불편해질 수 있는 이 현상들을 감추지 않는 거죠.

한편으로는 등장하는 자본가 일가의 인물들이 꽤나 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악덕 자본가의 느낌보다는 그냥 뒤도 자멸할 인물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자본가의 어린 딸 해숙을 여러 명의 아이들이 괴롭히는 설정은 현대적 정서로 볼 때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현대 관객에게 작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 시위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호신술을 배운다는 건 당시에 생각해도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기는 해요. 호신술이라는 소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주 집안 사람들, 특히 김상룡이 호신술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진지하게 믿어야 돼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호신술을 배우는 이 소동이 은밀하고도 법적이고 의학적인 고려까지 해가면서 거하게 벌어지는 것이고요. 덧붙이자면 희곡에는 그런 뉘앙스가 없기는 한데, 등장 하는 변호사, 의사 등의 인물들에게 권력에 부역하는 지식인의 느낌이 있어요. 호신술을 배우는 이 모든 과정이 부조리 하다는 걸 알면서도 동조하고 있는 거죠. 원작에서는 지주와 노동자로 계급을 이분화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계급을 쪼개고 있어요. 자본을 공고히 하는 것은 자본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공고히 하는 거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김상룡과 거리를 뒤흔어야 이야기가 웃기기도 하고 또한 풍자가 가능한 것인데, 개인적으로 우리 시대는 풍자가 가능한 시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은 삶 안에서 동일시의 대상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약자로 만드는 대상과 동일시 하지요. 실체가 아닌 가상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풍자가 의미가 없는 거죠.

노동자가 직접 극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중요한데, 호신술을 배우는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노동쟁의의 역사나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잡히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시대였어요. 호신술이 작동되는 배경이 구체적인 공포가 아니라는 것, 그러다 보니 호신술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측이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이 과도하게 과격해지는 것이고요.

작가가 이 작품을 쓴 목적이 선동이었다는 것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을 찾는다면 아마도 마지막 장면에 노래로 등장하는 노동자들의 존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노래로 그들을 표현하실지 궁금합니다.

윤 마지막 파업단의 습격이 결국 작품이 향하는 궁극의 소동이에요. 그 당시 시위 집회 현장에서 불리던 노래들을 찾고 있는데 아직 정하지는 못했어요. 마지막 장면에 하인들이 몰려오는 노동자들을 보며 마치 첫눈이라도 보는 듯이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파업을 신나는 일로 만들 수 있는 노래로 찾고 있어요. 관객들로 하여금 시위 자체가 한편으로는 신나는 것 혹은 해방구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요.

인터뷰 진행 및 정리
남궁경(자유기고가)

시놉시스

"워낙 시절이 험악해서 이따위 고생을 하는구려."



1930년대 어느 한가한 토요일 오후,
여러 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상룡은
온 가족을 한데 불러 모은다.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폭력사태를 염려하여
가족들과 함께 호신술 수업을 받기로 한 것.
70대의 아버지부터 소학생인 딸까지,
가족들은 온갖 난리법석 속에서
호신술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작품 속 단어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외







신재환 김상룡

연극

<게으름뱅이의 천국> <공포> <들개의 기억> <음악의 유령> <두뇌수술> <1984>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아가지 않는다> <Now's Tomorrow>
<누가 무하마드 알리의 관자놀이에 미사일 펀치를 꽂았는가?> 외



이영석 서춘보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보이 겐츠 걸> <퀘짱> <웃어요 덕구씨> <혈맥>
<조치원 해문이> <푸르른 날에> <고도를 기다리며>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외

수상

2017 한국연극배우협회 올해의 배우상, 제4회 서울연극인대상 연기상
2015 제15회 미장센단편영화제 심사위원 특별대상
2014 제1회 서울연극인대상 남자연기상 외



김은석 김정수

연극

<집에 사는 몬스터> <공포> <중립국> <토일릿 피플>
<싸지르는것들> <꿈속의 여정> <플라토노프> <변태>
<깨끗한 집> 외



최지연 흥경원

연극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 공육진의 병신춤 편>
<전화벨이 울린다> <고발자들> <할미꽃단란주점 할머니가 멜론씨를 준다고 했어요> <미디어> <인터넷 이즈 씨리어스 비즈니스> <환도열차> <치정> <조치원 해문이> 외



박가령 혜숙

연극

<운명> <성> <자메이카 헬스클럽> <내가 하늘을 날 때> 외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외



이원희 윤상천

연극

<페스트> <3월의 눈> <이 일을 어찌할꼬> <바보리어>
<갈매기> <함익> <문제적 인간 연산> <바나 삼촌>
<세익스피어의 모든 것> 외



박경주 박정훈

연극

<운명> <두드러라 맥베스> <성> <한밤의 사람들>
<[On Air] BJ파우스트> <페스카마-고기잡이배> <금지된 장난>
<올 아버 정초부> <두 병사 이야기> 외

수상

2017 제7회 서울미래연극제 베스트 퍼포머상



김청순 이우인

연극

<오후만 있던 일요일 part.2> <의붓기억> <고발자들>
<할미꽃단란주점 할머니가 멜론씨를 준다고 했어요>
<안산순례길 2017> <나의 교실> <신춘문에 페스티벌 '갑론을박'>
<늦게 핀 꽃> 외



유성진 만담꾼 & 젊은 하인 A

연극

<최서림, 야화 순례 기행전> <불날> <빨간사>
<12인의 성난 사람들> <불량청년> <햄릿아버> <돌아온 박첨지>
<치정> <두사람을 위한 만찬> 외



박하늘 만담꾼 & 젊은 하인 C

연극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 공육진의 병신춤 편>
<페이지의 역사(I'M F.)> <공포> <오후만 있던 일요일 part.2>
<의붓기억-억압된것의귀환> <고발자들> <할미꽃단란주점 할머니가 멜론씨를 준다고 했어요> <안산순례길 2017>
<나는야 연기왕> 외



최지현 만담꾼 & 젊은 하인 B

연극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 공육진의 병신춤 편>
<페이지의 역사(I'M F.)> <안산순례길 2018>
<오후만 있던 일요일 part.2> <고발자들>
<할미꽃단란주점 할머니가 멜론씨를 준다고 했어요>

웃음으로 시대적 모순 공격하기 : 풍자극 〈호신술〉

김재석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송영은 카프계열 작가 중에서도 “프로 희곡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호, 『조선의 희곡 현황과 금후 방향』)한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1925년에 카프(KAPF)가 결성되면서 계급적 관점의 연극운동이 본격화되었으나,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여 공연 활동은 거의 불가능했다. 일제강점기 노동자·농민의 궁핍한 생활에 대한 “진실한 프로적 문예”(박영희, 『투쟁기에 있는 문예비평가의 태도』)는 무엇인가를 두고 카프계열 연극인들은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한 고민은 카프의 연극에 대해 더욱 더 가혹한 일제의 검열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로 귀결된다. 1920년대를 마무리 지을 즈음에 카프계열 연극인들은 진정한 프로극만 고집하다가 검열 불통과로 인하여 좌절하기보다, 프로극의 최소 요건을 갖춘 작품으로 공연을 시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송영은 이러한 관점의 노력과 실천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작가이다. 노동문제를 사실적 표현으로 다룬 1920년대의 극작품이 전혀 공연되지 못하자, 송영은 검열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웃음으로 시대적 모순을 공격 하는 풍자극을 선택했다. <일체 면회를 거절하라>(『조선강단』, 1931) 및 <호신술>(『시대공론』, 1931.9, 1932.1)은 합법적 극장공연을 지향한 송영의 노력이 거둔 결실이면서, 식민지조선 카프극의 모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과이다. <호신술>은 극단 메가폰에 의해 1932년 6월 8일부터 9일까지 경성의 조선극장에서 공연되었으며, 7월 3일부터 인천에서도 공연하였다. <일체 면회를 거절하라>는 1933년 2월 6일 중전북악회가 공연하였다. 1930년대에 송영의 작품이 많이 공연되었다는 사실은 풍자극이 검열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호신술>의 풍자 효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작품이 풍자의 ‘소살(笑殺)’에 이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쉬운 느낌이 있다. 비판의 대상에 대한 교정의 지를 강하게 가진 작품이 풍자극이라는 점에서 보면, <호신술>의 대상의 희화는 교정의 강도가 그리 높지 않은 기법이다. <호신술>에서 풍자의 대상은 자본가와 그에 기생하는 세력인데, 그들의 결점이 너무 쉽게 드러나 버려 비판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대상의 희화에 의한 풍자극에는 부정적 성격의 주인공(Protagonist)에 대항하는 긍정적 성격의 반동인물(Antagonist)이 극중에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극의 갈등이 두드러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부정적 인 대상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애를 쓰지만 긍정적 반동인물에 의해 마침내 폭로되고 징벌 받는 방식이 아니어서, 자칫하면 자본가와 그에 기생하는 세력의 힘을 과소평가하게 만들 위험마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호신술>이 단순한 익살극(Farce)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 것은 다름 아닌 극의 결말부에 등장하는 노동자들이다. 극의 말미에 파업 노동자들은 김상룡의 집으로 몰려와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한다. 경찰이 나서서 노동자들을 막고 있지만, “최후까지 싸우겠다.”(<호신술>)는 격문이 돌과 함께 방으로 날아들자 김상룡과 주변 인물들은 겁에 질려 우왕좌왕한다. 파업 노동자들은 극이 진행되는 동안에 부재했던 긍정적 반동인물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크게 성장한 당대 노동자들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송영은 노동자들을 무대에 직접 등장시키지 않고 ‘보고자’ 형식과 음향효과로 처리하고 있으나, 관객들이 노동자의 단결된 힘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극의 말미에 등장하는 노동자들의 행동이 갑작스럽게 느껴져서 마치 ‘기계 신(Deus ex Machina)’에 의한 억지 해결처럼 보이는 면도 있다. 그러나 풍자극에서 이루어지는 관객의 반응을 고려하여 그 점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호신술>의 주요 관객층은 노동자·농민들이다. 김상룡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 프롤레타리아 관객들은 보다 통쾌한 직접적인 징벌까지 기대하게 된다. 극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노동자들은 관객들의 그러한 바람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송영은 <호신술>에서 의도적으로 ‘이중적 비판’을 사용하였다. 김상룡과 그에게 기생하는 체육가, 의사, 변호사와 같은 부정적 인물들은 관객들의 웃음에 의해 일차적인 비판을 받고, 극 중 노동자들에 의해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받는다. 그로 인하여 대상의 희화에서 발생하기 쉬운 긴장감의 상실이 보완되고, 프롤레타리아 관객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을 타도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호신술>은 “현재 조선의 소위 부패한 명사들을 전부 등장시켜 그들의 부란(腐爛)한 표면을 폭로시킨 데에 통쾌미를 가질만한 쾌작”(현인,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 본 원고는 국립극단 이야기마당2
‘우리 연극의 풍경 1920-1930’에
게재된 필자의 원고를
일부 수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체 면회를 거절하라>는 송영 풍자극의 출발점이 되는 작품이다. <일체 면회를 거절하라>는 ‘대상의 희화(戲畵)’를 통해 부정적 인물의 결점을 폭로하는 공연기법이 사용된 최초 작품으로 의미가 크다. 부정적 인물이 뜻하지 않게 자기 자신의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고 마는 공연기법이 대상의 희화이다. 그러나 지배인과 기생, 시인이 차례로 등장하여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일체 면회를 거절하라>는 극적갈등이 약한 작품이 되고 말았다. 공연을 본 송영이 “작가로서의 시야가 적고 소설같이 평면적으로 묘사 했구나 하는 생각이”(송영, 『자작극을 처음 무대에서 볼 때』) 든다고 한 것도 바로 극짜임의 문제점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한 결점이 보완된 작품이 <호신술>이다.

<호신술>의 공장주 김상룡은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자, “없는 놀일 수록 다소곳하고 잘 살 생각들은 못 하고 그저 멀쩡하게 서로 똑같이 나눠 먹자는 수작만 한다.”(<호신술>)며 분노한다. 그러나 그는 예전과 다른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는데, “전에는 몇 만 잡아두면 호지부지되던 것이 저 아니 이번엔 당초에 쇠덩이 같이 모여 아단”(<호신술>)이기 때문이다. 1929년 1월부터 4월까지 3000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던 원산총파업 이후, 평양고무공장노동자의 파업(1931)을 위시한 여러 노동쟁의에서 노동자들이 강력한 투쟁력을 발휘하고 있던 당대 상황이 <호신술>에 반영된 것이다.

김상룡은 일제의 경찰력만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호신술을 배워 자기 자신을 지키기로 한다. 파업 대책으로 호신술을 배우고 있는 김상룡의 모습은 관객을 어이없게 만드는데, ‘생각이 정상(Normality)에서 벗어난’ 희극적 인물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다. 호신술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김상룡은 가족 모두에게 배우도록 한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의사까지 불러놓고 열심히 호신술을 배워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바람과 달리 헛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호신술을 배운 김상룡이 그의 부인에게 얻어맞고 나가떨어지는 광경은 관객의 웃음을 자아내면서, 그가 믿고 있는 무력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켜준다.

극이 진행될수록 김상룡은 관객에게 점점 더 우스꽝스럽고 열등한 인물로 인식된다. 풍자극에서 웃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희화된 김상룡은 프롤레타리아 관객에게도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게 된다. 심정적으로 김상룡에게 우위를 점한 관객들은 그를 마음껏 비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립극단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시리즈

국립극단은 근현대극을 통해 동시대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편에 이은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다. 2018년부터는 현대 관객들에게 더욱 의미있는 근현대극을 소개하기 위해 근현대극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을 선정하고 올 9월에는 관객과 함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살아있는 이중성 각하> (오영진 작, 김광보 연출) 2014.9.12.-9.28. 달오름극장 | <이영녀> (김우진 작, 박정희 연출) 2015.5.12.-5.31. 백성희장민호극장 | <토막土幕> (유치진 작, 김철리 연출) 2015.10.22.-11.1. 달오름극장 | <국물 있습니다> (이근삼 작, 서충식 연출) 2016.4.6.-4.24. 백성희장민호극장 | <혈맥> (김영수 작, 윤광진 연출) 2016.4.20.-5.15. 명동예술극장 | <산허구리> (함세덕 작, 고선웅 연출) 2016.10.7.-10.31. 백성희장민호극장 | <가족> (이용찬 작, 구태환 연출) 2017.4.21.-5.14. 명동예술극장 | <제향날> (채만식 작, 최용훈 연출) 2017.10.12.-11.5. 백성희장민호극장 | <운명> (윤백남 작, 김낙형 연출) 2018.9.7.-9.29. 백성희장민호극장 | <호신술> (송영 작, 윤한솔 연출) 2018.12.5.-12.24. 백성희장민호극장

<호신술>이 선정되기까지

정명주 작품개발실장

그동안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시리즈를 통해 1925년 작 <이영녀>부터 1968년 작 <국물 있습니다>까지 해방 전후의 다양한 작품을 골고루 선보였습니다.

근현대극
자문회의의 1차
2017.12.08.

김명화 자문위원

송영이 카프 출신이고 월북 작가라 그동안 국립극단에서 한 번도 공연되지 않았잖아요. 윤한솔 연출이라면, 오히려 단아한 사실주의보다 송영의 작품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김옥란 자문위원

윤한솔 연출에게 송영의 <호신술>, <신임이사장>, <황금산>, <윤씨 일가>를 모두 제시하고, 그 중 한 작품을 고르게 하는게 어떨까요. 연출적으로 채워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현대극
자문회의의 2차
2018.01.09.

이성열 예술감독

<호신술>의 분량이 짧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작품과 연계해서 공연해야 할지요.

윤한솔 연출가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시간은 나올 것 같아서요.

이성열 예술감독

그럼 송영의 네 작품 중 <호신술>을 중심으로 연출가에게 제안해보겠습니다.

이성열 예술감독

<호신술>의 분량이 짧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작품과 연계해서 공연해야 할지요.

김남석 자문위원

전통적인 작품인 <흥부와 놀부>나 <태평천하> 같은 작품에서 관객들이 반대로 부정적인 인물을 알아가면서 깨닫는 즐거움도 있었잖아요. 송영도 전략적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계급의식이 투철하지 않았나 싶어요.

양승국 자문위원

송영의 대표작으로 1930년대 프롤레타리아 희곡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죠. 풍자를 통해서 당대 현실을 비판하는 기교가 매우 뛰어납니다.

근현대극
자문회의의 4차
2018.04.07

지민주 공연기획팀장

공연기획팀에서 읽었을 때는 전형적인 근현대극의 이미지가 아닌 유머러스한 풍자가 좋았어요. 관객들에게 주제가 풍자 방식이 신선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성열 예술감독

1930년대에 노동문제를 다룬 게 놀라웠어요.

이상우 자문위원

이 작품이 이동식 소형극장에서 공연된 목적이 계급의식을 공유하는 관객들 앞에서 상연함으로써 의식을 고취하려는 것도 있었겠지만, 더불어 일반 관객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본가 계급의 허둥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급운동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유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 위 내용은 국립극단 근현대극 자문회의의 녹취록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했습니다.

출연

서춘보	이영석
김정수	김은석
홍경원	최지연
만담꾼 및 젊은 하인 A	유성진
김상룡	신재환
윤상천	이원희
박정훈	박경주
혜숙	박가령
만담꾼 및 젊은 하인 C	박하늘
이우인	김청순
만담꾼 및 젊은 하인 B	최지현

스태프

작	송 영
연출	윤한솔

무대·소품	신승렬
조명	김형연
의상	김경희
무술	이국호
분장	이동민
음악	옴브레
음향	주원국 음창인
무대·소품보	김혜림
조연출	박현지 최용혁
무대감독	김장호

근현대극 자문위원	양승국 이상우 김명화 김옥란 김남석
작품개발·학술	정명주 지영림 김소연

무대·기술 총괄	신용수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제작감독	임채호
조명감독	임수연
음향감독	음창인 주원국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진행	섭선이 김현동 김 민
조명오퍼레이터	손민영
음향오퍼레이터	주원국
의상진행	이경민
분장진행	이수연 안소연

무대제작	온스테이지
의상제작	경희
소품제작	하루
조명팀	김대현 김병철 이상민 조성현 박성훈 최재걸 김병희 김병구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오지수 이정민
마케팅	이다영 박보영 최윤영 한나래 김태은 이송이 김효진 소여진
대학생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5기 김정민 김희지 문수빈 손은정 이승희 허정원

그래픽디자인	써니아일랜드
응용디자인	스튜디오 붐빔
홍보사진	SUPA GROUND
연습·공연사진	이강물
홍보영상	602 STUDIO
기록영상	미니멀랩 프로젝트
옥외광고	킨비즈커뮤니케이션 문화공장 오감
홍보물인쇄	어뮤즈랩
프로그램디자인	스튜디오 붐빔
프로그램인쇄	미림아트

티켓	김보연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매표안내원	김인혜 허수련 이준원 이은지 김다애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하우스안내원	이시라 권묘정 전준형 김성주 박만수 이지은 이해조 정진영 김소희 박채현 오민지 정이현

기획·제작 총괄	지민주
프로듀서	정채영
제작진행	홍류리

주최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재단법인 국립극단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네이버(주) 경영고문 | 이성열 이사·(재)국립극단 예술감독 | 고희경 이사·홍익대학교 교수 | 이상우 이사·고려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김철호 이사·국립중앙극장장 | 김성일 이사·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 안병군 공연자료 관리 | 김소연 청년인턴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정채영 심소연 박성호 프로듀서 | 김소현 이아름 청년인턴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 박보영 최윤영 한나래 김태은 이다영 김효진 이송이 마케팅 | 오지수 이정민 홍보 |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티켓관리 |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매니저 | 소여진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신용수 팀장 | 김무석 기술감독 | 김승철 신승호 무대감독 |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음향감독 |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최슬기 홍영진 무대제작감독 | 임채호 무대기계감독 |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 김민주 윤성희 주원국 김태진 김민정 나누리 연수단원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 신민희 대외·평가·예산 | 현승은 박지민 이민주 예산·회계·세무 | 이민희 복무·복리후생 | 정병욱 시설·안전관리 | 박예원 정보화·교육 | 최태영 인사·제도관리 | 김시내 예술감독 비서 | 주현우 노무·자산·계약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연구원 | 최은정 예술교육 | 권은지 연수단원

2018 시즌단원

이수미 정원조 최지훈 이종무 김 한 주인영 장지아 양서빈 이원희 김수아 박경주 정새별 홍아론 임준식 이호철 강해진 박가령 조남용

